



numbers
vol. 284

평신도 사역 인식 및 실태

목회자 84%, 교역자 유무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 강화해야!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캥거루족 청년 실태
- ② 한국인의 계층 이동 인식
-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

2025. 4. 2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자 84%, 교역자 유무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 강화해야!

한국 교회는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과 신학교 지원자 감소라는 이중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신도 사역은 이제 하나의 보완책을 넘어,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사역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화는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평신도 역시 교회와 사회에 파송된 사역자이자 선교사라는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내 사역, 소그룹 활동이 중심 사역으로 떠오르며, 평신도 역할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평신도 사역’을 다룬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와 출석교인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평신도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고, 각 교회 차원에서 사역적 전략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평신도 목회 (LPM)

■ 주최: 평신도목회연구소

■ 후원: 평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 인식 및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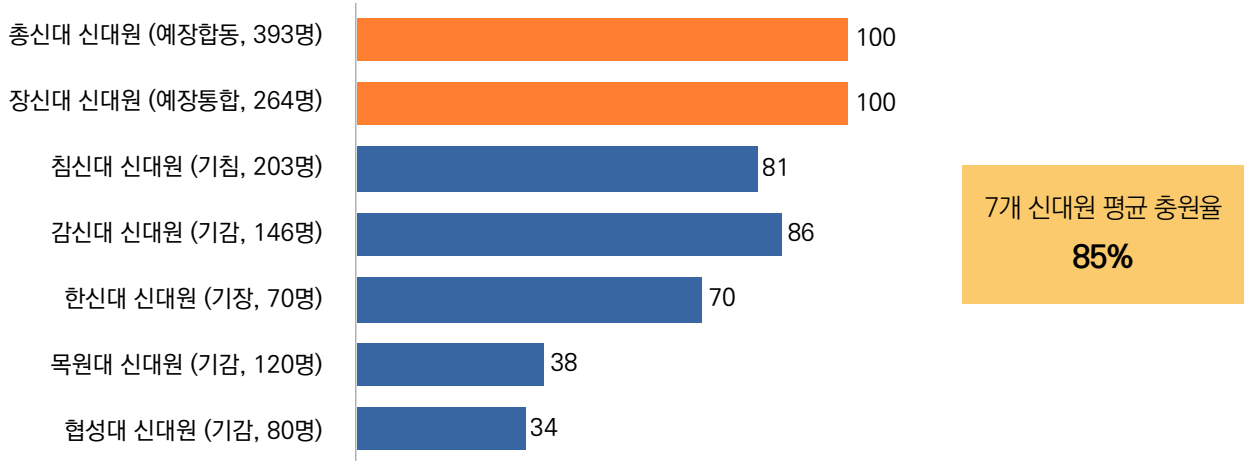
구 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 에서 $\pm 3.1\% p(1000\text{명 조사의 경우})$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14일 ~ 5월 22일 (총 9일간)	2024년 5월 17일 ~ 5월 20일 (총 4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기아대책 / 월드비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평신도 시대의 도래: 부교역자 부족 및 사역 기피] 7개 중 5개 신대원 '정원 미달', 목회자가 줄어든다

- 현재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부교역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 현황(대학알리미)을 통해 살펴본 결과, 7개 신대원 평균 충원율은 85%였으며, 7개 신대원 중 총신대와 장신대 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대원은 정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주요 교단의 신대원 입학생이 줄고 있어 향후 목회자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그림] 신대원별 평균 충원율*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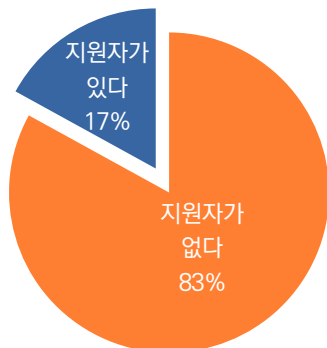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 신입생 총원 현황(대학원) 자료 참조, 2024.

*괄호 안 숫자는 각 신대원별 정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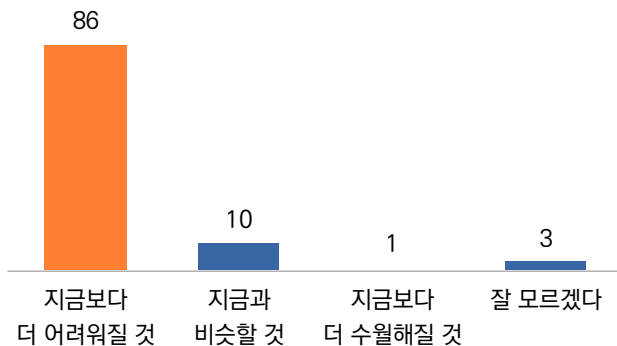
향후 부교역자 청빙, '더 어려워질 것', 86%!

- 이번에는 우리 연구소의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 조사' 결과 일부를 살펴본다. 먼저 담임목사 대상으로 최근 전임 전도사나 부목사를 모집했을 때 상황을 물었다. 그 결과, '지원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3%로 압도적이었고, '지원자가 있다'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 교역자 청빙 전망에 관해서도 대다수(86%)의 목회자는 부교역자(전도사, 부목사) 청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 전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전임전도사/부목사 지원자 상황* (담임목사)



[그림] 향후 부교역자 청빙 전망 (담임목사,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9. (목회자 조사: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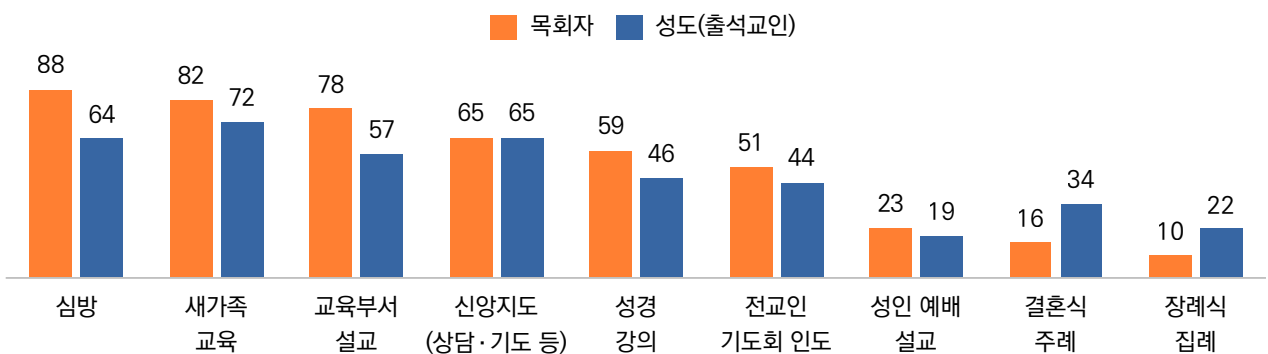
02

[평신도 사역 가능성]

목회자, '평신도가 교육부서 설교할 수 있다' 78%!

- 성인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신앙 지도, 심방 등 목회자의 주요 10개 사역을 제시한 후, '목회자만 할 수 있다',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중 선택하게 했다.
- 그 결과, 목회자들은 출석교인보다 전반적으로 평신도의 사역 참여 가능성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10개 사역 중 6개는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평신도 사역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 사역'은 '심방'(88%)이었고, 이어 '새가족 교육' 82%, '교육부서 설교' 78% 등의 순이었다.
- 한편 성도들은 '새가족 교육' 72%, '신앙 지도' 65%, '심방' 64% 등의 순으로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장례식 집전'과 '성인 예배 설교' 등 일부 영역은 평신도가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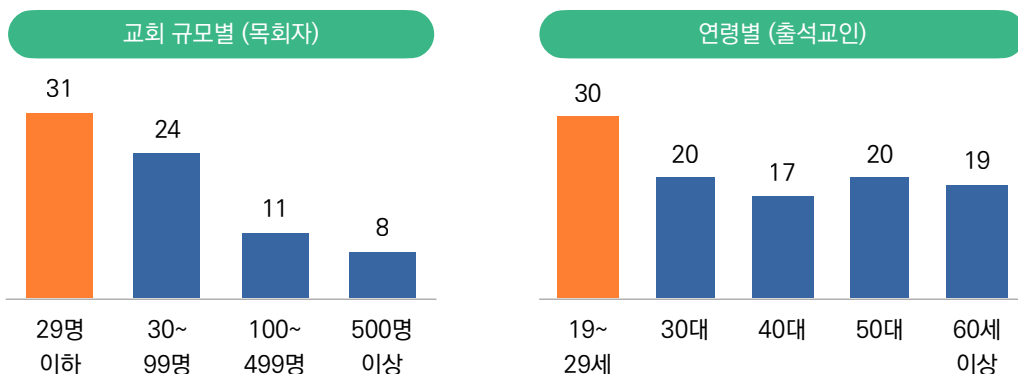
[그림]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응답률 (%)



소형교회일수록 '평신도 설교' 가능성 높게 인식!

- '성인 예배 설교'를 평신도가 할 수 있는가(목회자 23%, 출석교인 19%)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목회자와 출석교인 모두 특정 조건에서 인식 차이를 보였다.
- 먼저 목회자는 교회 규모에 따라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출석교인이 '29명 이하'인 소형교회 목회자는 31%가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0명 이상' 대형 교회는 8%에 불과해 교회 규모가 클수록 평신도의 성인 예배 설교 가능성에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 성도의 경우 연령별로 인식이 달랐는데, 19~29세 청년층에서는 30%가 '평신도도 설교 가능하다'에 동의한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주일 성인 예배 설교는 목회자의 고유 사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성인 예배 설교 '평신도도 할 수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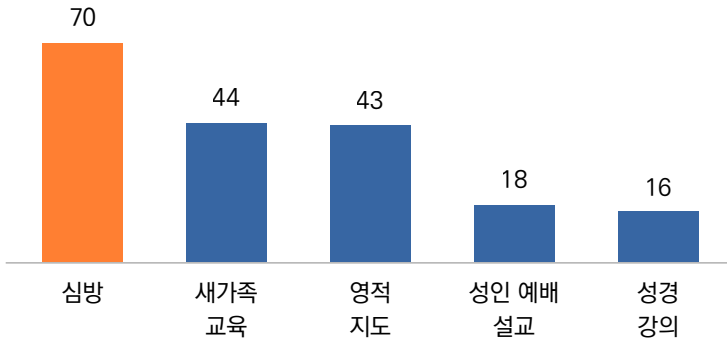


03

[출석교회 평신도 사역 현황] 평신도 사역, '심방'이 가장 높아

- 현재 시무교회에서 평신도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목회자(담임목사)에게 물었다. 그 결과, 10개 사역 분야 중 '심방'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새가족 교육' 44%, '영적 지도' 4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시무교회에서 평신도가 하는 사역* (목회자, 상위 5개,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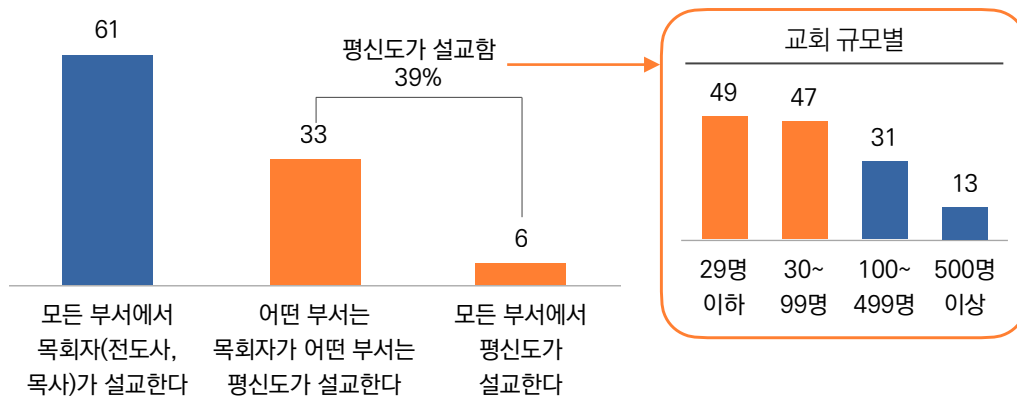


*기타 응답은 제외

교회 10곳 중 4곳, 교육부서 설교 평신도가 담당!

-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평신도의 교육부서 설교 실태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누가 교육부서 설교를 하는지'를 묻은 결과, '모든 부서에게 목회자가 설교한다' 61%, '평신도가 설교하는 경우' 39%로 10개 교회 중 4개 교회는 실제 평신도가 교육부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평신도의 교육부서 설교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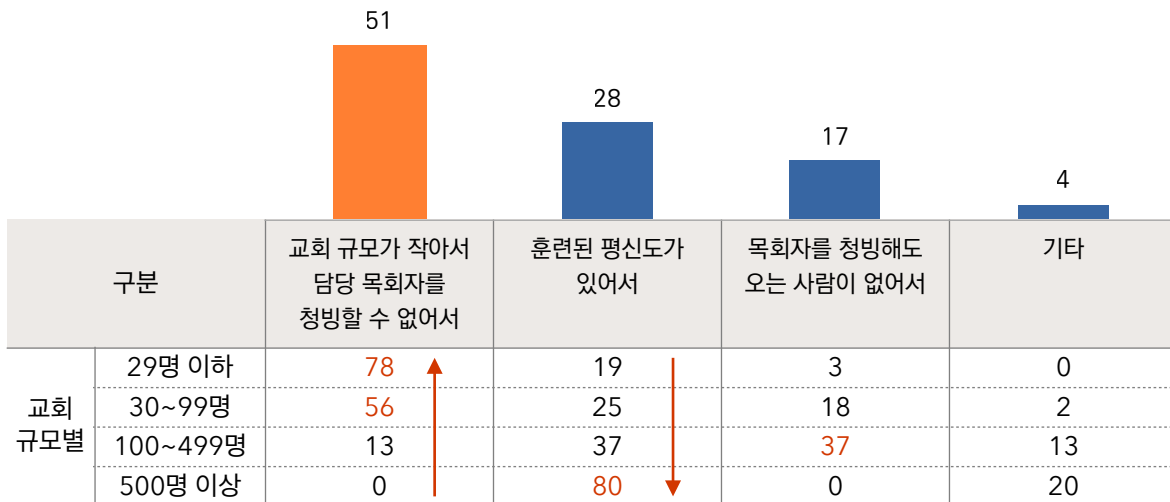
[그림] 교육부서 설교 담당자 (교육부서가 있는 교회 담임목사, %)



교육부서 설교 평신도가 하는 이유, 중·소형교회: ‘사역자 없다’ vs 대형교회: ‘훈련된 평신도 있다’!

- 교육부서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교육부서 설교를 왜 목회자가 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 과반(51%)이 ‘교회 규모가 작아서 담당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어서’를 꼽았고, ‘훈련된 평신도가 있어서’ 28%, ‘목회자를 청빙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17% 순이었다.
- 교회 규모별 응답 이유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교회 여건상 담당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훈련된 평신도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육부서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 이유 (교육부서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 교회의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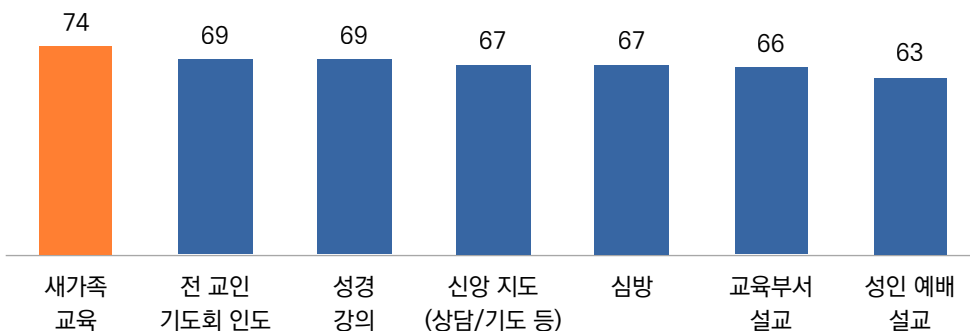


04

[평신도 사역에 대한 평가] 목회자 60% 이상, ‘주요 목회 사역, 평신도가 해도 문제 없다’!

- 이번에는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평가를 살펴본다. 주요 사역별 평신도가 사역해도 ‘별 문제 없다’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 수용도가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가장 높게 응답한 사역 영역은 ‘새가족 교육’으로 74%였고, 이어 ‘전 교인 기도회 인도’ 69%, ‘성경 강의’ 69%, ‘신앙 지도’ 67% 등의 순이었다.

[그림] 평신도의 목회사역 평가 ‘별 문제 없다’ 비율* (현재 각각의 해당 사역을 평신도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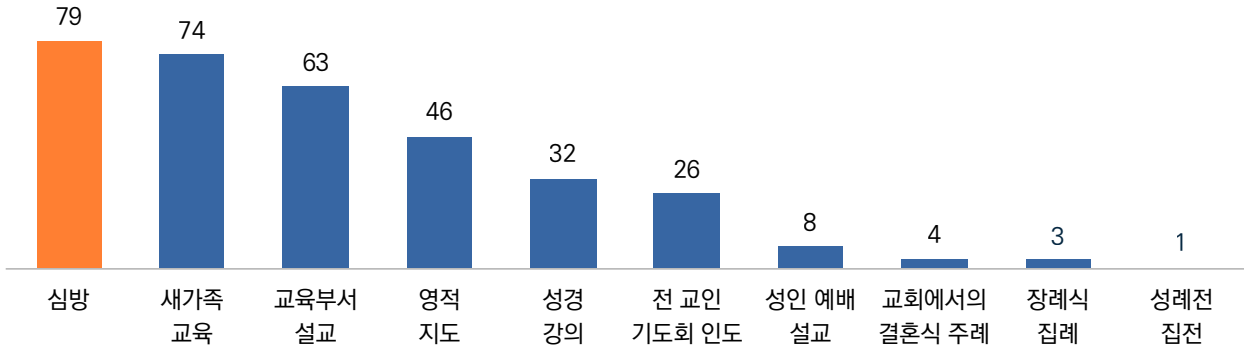
*3점 척도(목회자보다는 미흡, 별 문제 없음, 오히려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 같음)

**장례식 집례, 결혼식 주례, 성례전 집전은 표본 수가 적어 항목에서 제외함

평신도에게 맡길 수 있는 사역, 심방 > 새가족 교육 > 교육부서 설교 순!

-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평신도에게 어떤 교역자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고려하고 있을까? 가장 많이 꼽힌 사역은 ‘심방’(79%)이었고, 이어 ‘새가족 교육’ 74%, ‘교육부서 설교’ 63%, ‘영적 지도’ 46% 등의 순이었다.
- 반면 ‘성인 예배 설교’, ‘결혼식 주례’, ‘장례식 집례’ 등은 10% 미만으로, 해당 영역은 여전히 목회자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평신도에게 맡길 수 있는 교역자 역할 (목회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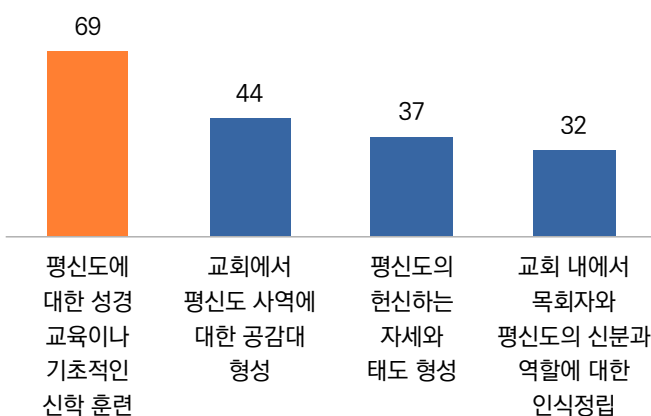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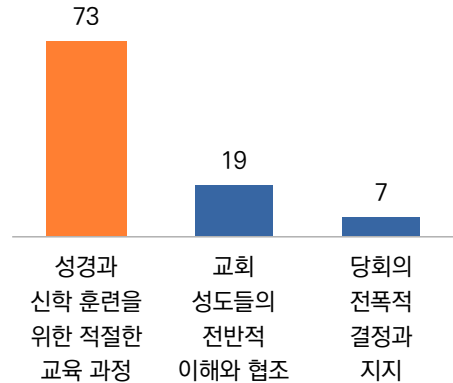
[평신도 사역을 위한 준비] 평신도의 목회사역 준비 1순위, ‘신학 훈련’!

- 평신도에게 교역자 역할을 맡긴다면, 교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목회자와 성도 간 응답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순위 면에서는 일치했다. 두 집단 모두 ‘평신도에 대한 성경 교육이나 기초적인 신학 훈련’(1순위)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회 성도들의 전반적 이해와 협조’는 각각 2순위로 응답됐는데, 이는 모두 ‘동료 성도들의 이해와 공감대’라는 동일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목회자, 중복응답, %)



[그림] 평신도의 목회 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 (출석교인, %)



*기타 응답은 제외

** 목회자 항목은 중복응답, 평신도 항목은 단수응답으로 질문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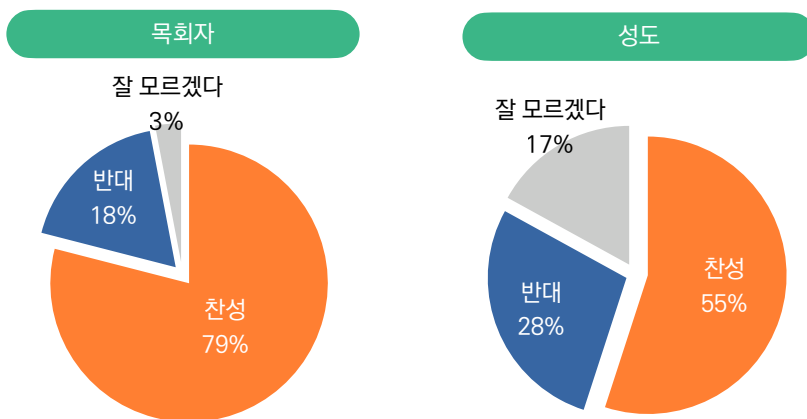
06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인식]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 목회자 79% '찬성'!

- 부교역자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각각 물었다.
- 그 결과, 목회자의 79%, 성도의 55%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이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목회자는 성도보다 평신도의 교회 내 다양한 사역 참여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 가능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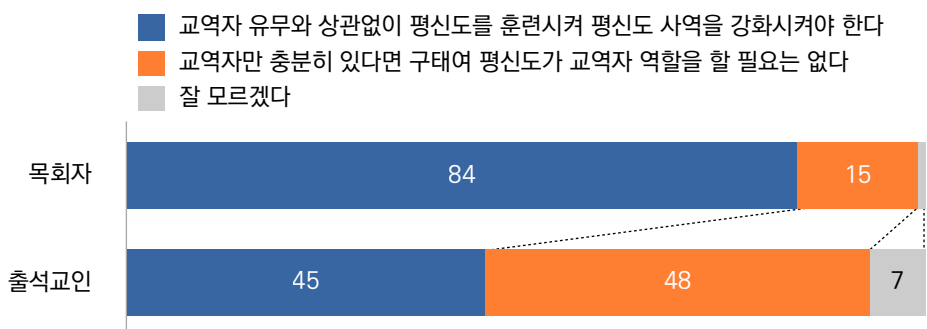


*4점 척도

목회자 84%, 교역자 유무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 강화해야!

- 담임목사들에게 교역자 유무와 관계없이 평신도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해 동일 항목의 성도 응답률(45%)을 크게 앞섰다. 이는 앞선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의 적극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 반면 성도들은 '교역자만 충분히 있다면 구태여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48%,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가 45%로,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성도들은 아직 교역자 중심의 사역 구조에 익숙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교회 사역까지 감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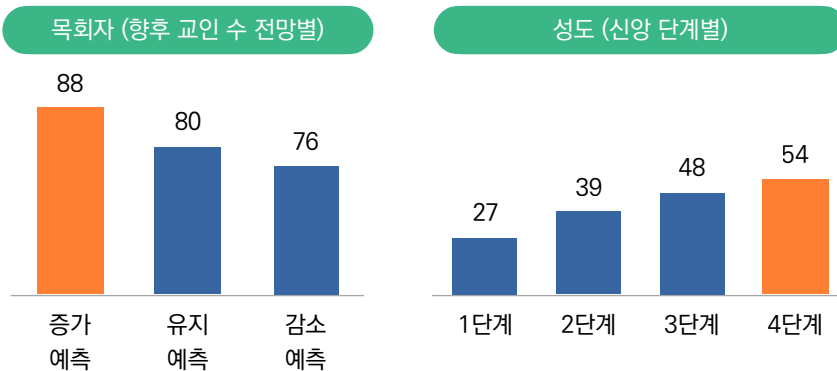
[그림]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에 대한 의견 (%)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평신도 사역 강화 의견 높아

-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응답은 일부 특성에 따라 응답률 차이를 보였는데, 목회자의 경우 ‘향후 교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평신도 사역 강화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성도의 경우에는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평신도 사역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 강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번호 요약

1. 교회 10곳 중 4곳, 교육부서 설교 평신도가 담당!

- 시무교회에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누가 교육부서 설교를 하는지’를 묻은 결과, ‘모든 부서에 목회자가 설교한다’ 61%, ‘평신도가 설교하는 경우’ 39%로 10개 교회 중 4개 교회는 실제 평신도가 교회 부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회자 60% 이상, ‘주요 목회 사역, 평신도가 해도 문제 없다’!

-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 평가를 주요 사역별로 살펴본 결과, ‘별 문제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60% 이상이였다. 전반적으로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수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목회자 84%, 교역자 유무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 강화해야!

- 교역자 유무와 관계없이 평신도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목회자의 경우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해 동일 항목의 성도 응답률(45%)을 크게 앞섰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존 스토틀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아바서원, 존 스토틀 저)

관련 성경 구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1~12)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 가능성에 대해 목회자의 79%가 찬성한 반면, 성도는 55%만이 동의하여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평신도 사역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84%가 ‘교역자 유무와 무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성도는 ‘교역자만 충분하면 굳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48%로 더 많았다. 이는 목회자는 평신도를 사역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성도는 여전히 교역자 중심의 구조에 익숙하고 사역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평신도를 교회 내 사역으로 이끄는 핵심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회와 목회자의 단순한 사역 참여 독려를 넘어, 은사에 따른 역할 배분과 단계별 위임이 필수적이다. 평신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교회를 예로 들면 전라남도의 W교회는 ‘1인 1사역’ 원칙을 통해 모든 교인이 자율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K교회는 ‘평신도 연구사역위원회’를 통해 평신도가 사역 기획에도 참여한다. 이처럼 목회자는 평신도를 ‘채워야 할 인력’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만들어갈 주체’로 인식하고, 설득과 훈련, 위임의 과정을 통해 사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유연성, 참여 확대, 권한위임 등 교회 거버넌스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교회 내 평신도 사역이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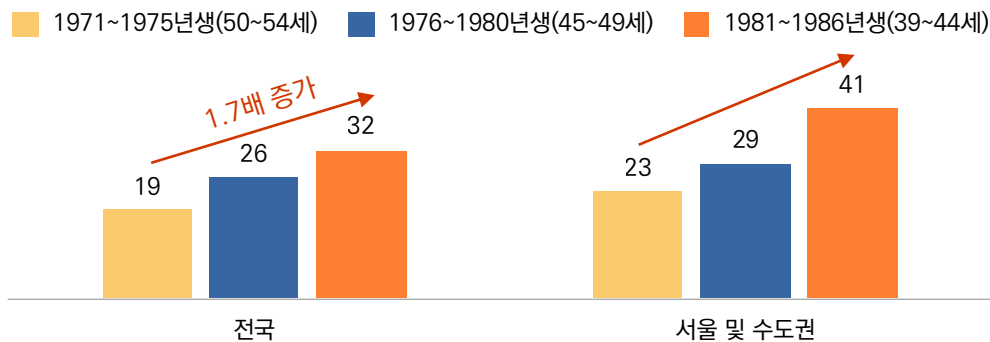
1. 켄거루족 청년 실태
2. 한국인의 계층 이동 인식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



[캥거루족 청년 실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35세 시점), 10년새 2배 가까이 증가!

- 캥거루족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한다. 35세 시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통해 '캥거루족 청년 실태'를 살펴본다.
-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시점에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전국 기준 현재 50~54세 연령대는 19%였는데, 39~44세 연령대에서는 32%로 10살 연령대 차이로 1.7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세 시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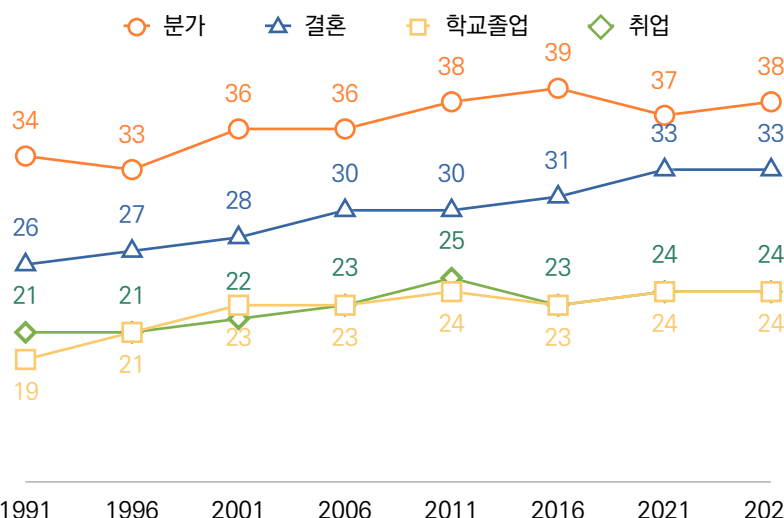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13호), 2025.01.27.

청년의 '졸업·취업·분가·결혼' 등 성인기 진입, 점점 더 늦어진다!

- 청년들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이행 단계로는 졸업, 취업, 분가, 결혼이 있다. 이러한 성인기 전환의 대표 지표 4가지를 중심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부터 2023년까지 변화를 추적해 본다.
- 그 결과, 학교 졸업 연령은 1991년 19세에서 2023년 24세로, 취업 연령은 같은 기간 21세에서 24세로 높아졌으며, 분가와 결혼 연령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늦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앞서 언급한 독립 시기의 지연, 즉 캥거루족 청년의 증가와 같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전체 성인기 전환점 추이 (1991~2023, 세)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13호), 2025.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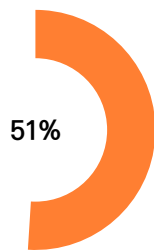


[한국인의 계층 이동 인식] 국민 절반, '한국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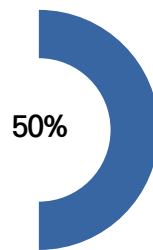
- 한국 사회 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2025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잘 드러난다. 국민 절반(51%)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에 동의했으며, '한국에서는 한번 가난해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응답도 50%였다. 이는 우리 사회 내 계층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한국 사회 내 계층 이동 가능성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한번 가난해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 2025.04.03.(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3.11.~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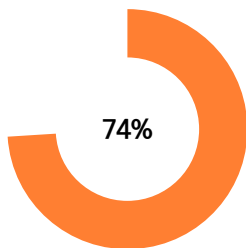
*5점 척도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장밋빛 비전 기대하기 어렵다'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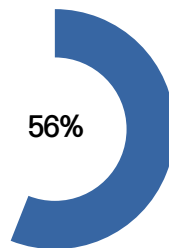
- 한국 사회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 같다'에는 국민 74%가 동의해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뚜렷이 나타났고,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장밋빛 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에도 국민 과반이 동의해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한국 사회 전망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앞으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 같다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장밋빛 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 2025.04.03.(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3.11.~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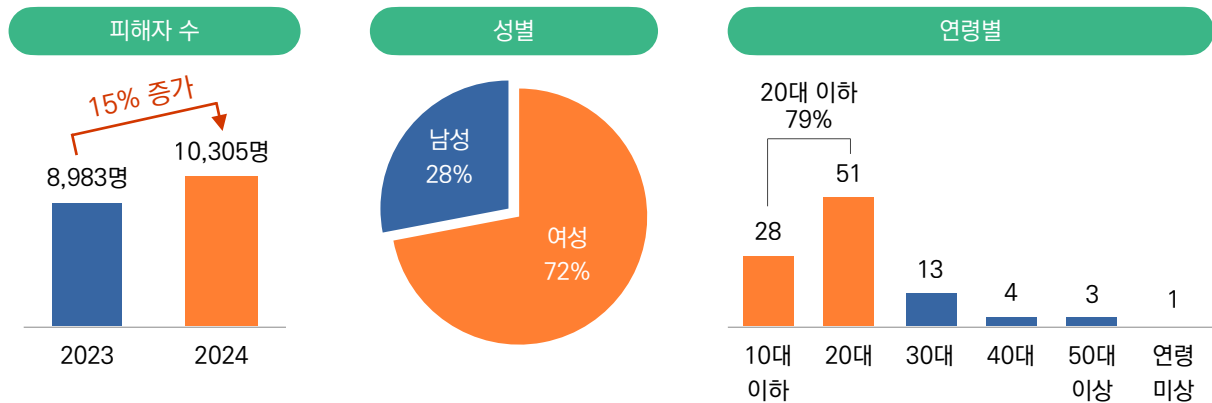
*5점 척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부분(79%)은 '20대 이하'!

-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본다.
- 2024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 305명으로 전년 8,983명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분포를 보면 여성(72%)이 남성(28%)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대(51%)와 10대 이하(28%)가 전체 피해자의 79%를 차지해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저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 및 성·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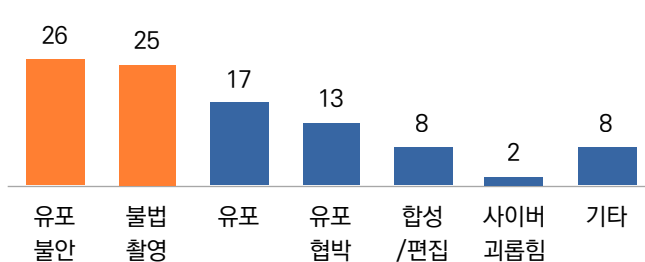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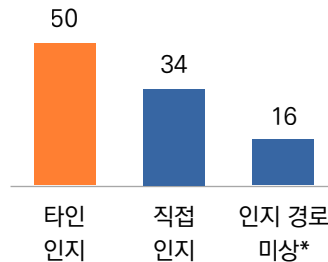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불안/불법촬영'이 가장 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 26%와 '불법 촬영' 2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유포' 17%, '유포 협박' 13%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범죄와 달리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였다.
- 한편 피해를 인지한 경로는 '직접 인지'한 경우(34%)보다 '타인을 통해 인지한 경우'(50%)가 더 많아, 피해 사실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피해 유형 (2024, %)



[그림] 피해 인지 경로 (2024, %)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5.04.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0호 \(2025년 4월 3주\)](#)

- 장래 정치 지도자,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평가, 경제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1호 \(2025년 4월 3주\)](#)

- 투표 참여 의향,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후보 호감도, 대선 구도 인식 등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국민 62%가 원한다](#)

주간조선_2025.4.20.

[민주 2위, 국힘 4위 누가 될까?...여론조사로 보는 경선 판세](#)

JTBC_2025.4.19.

사회 일반

[스트레스 치솟는 워킹맘..."가사+모성벌칙', 긍정 경험 힘들어"](#)

뉴시스_2025.4.16.

["미혼이 집 마련에 유리"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미루는 까닭](#)

조선일보_2025.4.17.

[소득 높을수록 "우리 아이 이공계로"... 자녀 진학 설계도 빈부차](#)

국민일보_2025.4.17.

["2033년 국민의료비 561조원, GDP의 15.9%...10년 새 2.5배"](#)

한겨레_2025.4.14.

[농가 인구 200만명 붕괴 코앞](#)

국민일보_2025.4.18.

[드라마 음악에 쓰는 돈 月 4만원인데...해지에는 절반이 '불편' 경험](#)

조선일보_2025.4.16.

[신규장애인 31% 청각장애인인데... 의료소통 어려운 농인들](#)

국민일보_2025.4.20.

[신혼부부 92%가 "스몰웨딩 긍정적"](#)

조선일보_2025.4.18.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 인식과 소통 평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4.16.

노인

[돈 있어도 가난해지는 치매 노인...'치매머니' 막으려면](#)

이데일리_2025.4.16.

경제 · 기업

[이직열풍·희망퇴직에도 대기업 근속연수 ↑...'21.8년' 기아 1위](#)

연합뉴스_2025.4.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동자 84% "노동시장 격차 개선해야"...유연성보단 안정성 선호](#)

[연합뉴스_2025.4.20.](#)

국제 · 환경

[식물성 단백질 vs 동물성 단백질, 101개국 기대수명 보니...](#)

[동아일보_2025.4.16.](#)

건강

[봉사할수록 오래 살았다...수명 늘리는 '이타적 유전자'](#)

[중앙일보_2025.4.19.](#)

["빠르게 걷기, 심방세동 등 심장 리듬 이상 위험 30~40% 낮춰"](#)

[연합뉴스_2025.4.16.](#)

기독교 · 종교

[美 성인 66%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헌신 중요"](#)

[데일리굿뉴스_2025.4.16.](#)

[\[\[특별기획\] 신대원생 의식과 사역에 관한 설문조사\], \(기독교연합신문\)](#)

[신대원생 인식조사, "'소명감' 늘고 '윤리의식' 약화됐다" _2025.4.17.](#)

[신대원생 '고령화' 추세에 부교역자 채용범위도 고민 _2025.4.17.](#)

[신대원생 한주 평균 148분 성경 읽고, 기도는 하루 1시간 _2025.4.17.](#)

[윤리의식 전반적 약화 현상... '이혼'에 관대해져 _2025.4.17.](#)

["목회자로서의 소명 때문에 신대원 입학" _2025.4.17.](#)

트렌드

['우리 강아지 사람으로 바뀌줘'...챗GPT, 또 대박 터졌다](#)

[한국경제_2025.4.1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문지은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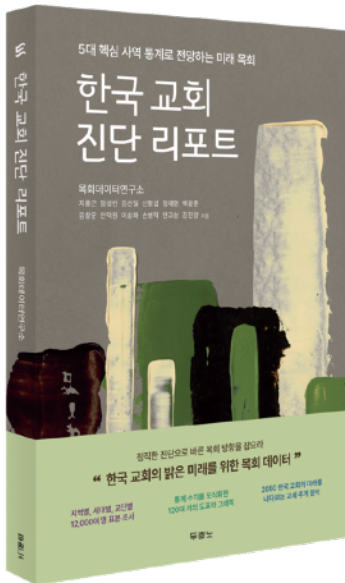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